

직장병 환자의 더 나은 간호법

(Better care for patients with rectal ailments)

Joseph F. Montague

서울의대대학부속병원 신 경 자 역

—결장 또는 직장 병의 전문의들은 항문 위생을 유지하고 직장병으로 인해 오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직장 병 환자의 치료나 간호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은 아마도 의사가 그 병에 대해 모호한 지도를 하였거나 간호원이 처방된 처치에 대해 익숙치 못하거나 또는 간호원이나 의사가 이러한 병을 가벼운 병으로 생각해 버리는데 기인한 것이다. 불편 고통 또는 비정상적인 신체적 기능들은 환자에게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불 만족스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는 여기에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 하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직장 수술이 행해져

왔는데 그 부위 위생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고 꾸준하고 이성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이다. 치질의 경우 정액의 분비나 때로는 약간의 출혈이 있다. 누공(Fistula)이 생기면 항상 피부를 자극시키고 썩히는 화농성이 심한 분비가 있으며 소양증이나 습진의 경우에는 늘 과도한 습기가 따른다. 심한 직장 탈출에 있어서는 직장 전부가 뒤집혀 나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분비물 때문에도 자극되게 된다.

청결이 우선 필요한 것이다.

간호원은 우선 그 부위를 비누와 물로 닦아야 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하던 청결이 유지되기는 하나 환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비누와 물은 효과적인 세척제 이기는 하나 피부조직을 연화시켜서 자극을 초래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박테리아와 균증(fungus)의

번식을 막거나 축적되어 있는 생물학적인 오물을 없애지는 못한다.

다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나는 항문생식기의(ano-genital) 부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곳을 습하게 하는 것 보다는 건조 시키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는 건조 시키는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했었다. 그러한 방법들이란 것은 모두가 그 부위를 보호하고 있는 표피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 표피막은 마치 분비물에 의한 자극과 박테리아의 침투를 막는 장벽과 같은 것이다. 처음에는 올리브유를 사용해 보았으나 그것이 어떤 형의 박테리아에는 번식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취소되었다. 다음에는 미네랄 유를 사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보았는데 특히 항생의 화학물 들은(antibiotic-chemicals) 이 미네랄 유와 결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2년간에 나는 소독제와 같이 항생-항균한 화학물을 가지고 있는 오일제를 사용해 왔다. 그런데 그것들은 기름기 있는 거품속에서 잘 결합되었다.

뉴욕의 Carter Products 에서 제조된 세척제 Annul 은 나뿐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아주 만족할만한 결과를 증명해 주었다. Annul 의 사용

법은 극히 간단하다.

그 부위를 우선 스폰지로 닦고 부드러운 세척천으로 말린다. 다른 천은 거품세제로 적셔서 표면에 있는 모든 부패물을 제거 시키는데 사용된다. 거품이 일었다가 그 거품이 사라지게 되던은 항생적이고 항균적인 거품세제의 도움을 받아서 항문 주위의 피부가 그 정상적인 막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보호적이고 병을 낫도록 하는 오일만이 남게된다. 이 세척제도 그 부위가 깨끗하고 불쾌감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심리적 만족을 더 하는 깨끗하고 신선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아무런 처치도 필요 없다. 그 부위는 오직 이 보호적이고 병을 낫도록 하는 오일이라는 극히 미소한 막에 의해서만 덮여서 건조 시켜야 한다. 이 거품 세제는 근본적으로 환자를 안정시키고 치료를 돕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Annul 은 이와같이 정확히 사용되기만 하면 외과적 수술을 받을 환자나 상처에서 오는 자극적인 분비물과 인접조직에서 나오는 삼출물로 늘 자극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간호하는 데에 놀랄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결장 개구술(結腸開口術)(Colostomy) 이나 회장루형 성술(廻腸瘻形成術)(Ileostomy) 한 환자들에게도 이 거품 세제로 세척하는 방법은 탁월한 효과를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가 말한것이 결코

치료의 방법은 아니다. 이것은 치료
 커나 낮게 하는 아무런 선전도 아
 니다.

이것은 다만 자극과 강하고 때로
 는 자극적인 화학물을 쓰지않는 방
 부제에 의한 소독제에 비해 말한
 것이다.

어떠한 간호원이든 간에 직장병

을 가진 환자를 간호할 때에는 항문
 위생을 이룰 수 있는 이 새로운 방
 법을 사용하므로써 환자들에게 커
 다란 편의를 주는 점을 발견한 것이
 라고 믿는 바이다.

--American Journal of Nursing에서

Nov. 1965.

Page 83. —

[소식란]

- 미세스·골든 에비슨(전 미쓰 취락스)씨 부처는 6월 30일 연세대학 창립 80
 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故 O. R. Avison 박사 제막식에 참석차 내한하여
 7월 4일 출국하였다. 미세스·골든 에비슨씨는 세브란스병원과 군정시 분교
 부에서 간호교육을 담당하여 일하신 분이다.
- 보건사회부 간호사업과장 황병희씨는 서북 루터교회 초청으로 파견된 간호원
 의 실태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7월 29일 항발하였다. 8월 26일 귀국하였다.
- 본 협회 이사이신 안홍선씨는 비올빈 마니타 소재 성바오로 미학에서 개최
 하는 중앙수도회의에 참석 후 8월 1일 귀국하였다.
- 오랫동안 서울대학병원 간호고문관으로 일하였던 미쓰 폴리안씨가 휴가를 이
 용하여 내한 후 출국하였다.
- 한국간호교육에 대한 연구차 내한 하였던 Dr. Adams 씨는 연구과제를 마
 치고 7월 7일 귀국하였다.
- 본 회 출판위원회 위원이시며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이신 전산초씨는 2
 년간 미국 조지아주 에트란타시 에모리대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시
 고 8월 9일 그리온 고국으로 오셨다.
- 서울시지부 이사이며 수도간호학교에서 기초간호학을 담당 하였던 이기선씨
 는 캐나다로 이민하였다.
- 7월 26일 부터 8월 5일까지 분교부주최 본 협회 주관으로 전국적인 양호교
 사 강습회가 서울의대 간호학과에서 국민, 중, 고등학교 양호교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끝마쳤다.
- 파월간간 의료원으론 처음으로 20여명의 간호원들이 월남으로 사랑의 손길
 을 펴라 7월 23일과 7월 30일 두차례에 걸쳐 출국하였다.
- 여름 휴가를 이용하여 지방간호학교 학생과 서울간호학교학생의 교류가 있었다.
 서울대학 부속병원에는 대전간호학교학생 11명, 춘천간호학교 16명, 세브란
 스병원에는 제정간호학교 30명, 춘천간호학교 15명, 성모병원에는 공주간호
 고등기술학교 30명, 춘천간호학교 1명이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습을
 하였다.
- 충남지부에선 6월 20일—24일까지 대전지구에 있는 생산기관 기록고 여자 총
 업원 200여명에게 모치보건과 육아보건에 관한 단기 강습을 실시하였다.
- 5월부터 실시한 간호원 신고 등록수는 8월 현재 약 4,800명이 등록하였다.